

김활성처리제 개발...환경·경제성·효능 모두 잡았다

파래·요각 제거 3배 효과...국내의 출원 신청·K-김산업 활성화 토대 김영록 지사, 국회의원 때 약속 지켜...김산업진흥원 설립 등 주도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김이 '국민 반찬'이라고 하지만 그냥 얻어지는 건 아니다. 바닷물이 차가워질 때부터 시작해 수온이 오르기 전 수확할 때까지 고된 노동력이 들어간다.

가을에 김 포자(胞子·씨)를 뿌리고 한 달 보름 정도 지나면 '초사리 김 (처음 수확하는 김)'을 딸 수 있고 이후로 15~20일 간격으로 9차례 정도 수확한다. 이보다보니 가뜩이나 일손 구하기 힘든 어촌에서는 휴일도 없이 새벽에 나가 해질 때에 돌아오는 일을 무한 반복한다.

드넓은 바다 양식장을 실재없이 옮겨다녀 김발을 들어올려줘야 파래·매생이 등 이물질이 끼지 않아 생산량이 늘어나고 갯벌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게 어민들 얘기다. 온 종일 바다에 나가 김발에 붙은 이물질 때어나다보면 녹초가 되기 일쑤였던 어민들이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무기산(염산)을 사용한 것도 이런 양식 환경과 무관하지 않았다.

정부가 권장했던 김활성처리제는 무기산 만큼 경제 효과가 크지 않아 어민들 눈에 들지 않았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무기산을 대체할 수 있는 김활성처리제 개발에 나선 이유이기도 하다. 전남도는 지난 5월 3년 간의 연구를 거쳐 개발한 신규 김활성

처리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 연구는 완도 초등학교 시절 부모를 따라 김 양식장에서 김에 달라붙은 파래, 매생이를 제거했던 경험과 인근 양식장에서 일하는 '삼촌' 토래 어민들이 활성처리제 대신, 무기산을 선호했던 속내도 알고 있었던 김 지사가 적극적으로 개발을 독려하면서 추진됐었다.

김 지사는 특히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인 해남-완도-진도에서 열렸던 '2015년 김 산업 지속 발전 방안 워크숍'을 통해 효과가 뛰어난 활성처리제에 대한 어민들 요구가 여전하다는 것을 확인한 뒤 대응책을 약속했었다.

김 지사는 당시 상황을 "어민들의 활성처리제 개발에 대한 요구는 김 수출액 3억 달러 돌파가 예상되는 시기에 이뤄졌던 워크숍이라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 대책과 친환경적 생산량 증대 방안 등에 대한 논의 만큼이나 절실했었다"고 기억했다.

김 지사는 민선 7기 전남지사로 당선(2018년)된 뒤 3년 전 워크숍에서 나왔던 약속을 떠올려 신규 김활성처리제 개발을 위한 용역 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국비 예산 없이 자체 용역비(10억)를 먼저 확보해 2022년부터 서울대 산학협력단을 통한 연



전남도가 지난 5월 개최한 신규 김활성처리제 개발 성과보고회. 김영록 전남지사는 최근 이같은 점을 인정 받아 한국김산업연합회로부터 공로패를 받았다.

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대 현장 실험을 거쳐 기존 활성처리제에 대한 문제점도 확인했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올해 모든 면에서 압도적 효과를 갖춘 신규 활성처리제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양식 효능시험 결과, 파래나 요각 제거의 경우 기

존 활성처리제보다도 최대 3배까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존 제품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점도 주목할만했다. 당연히 현장 반응도 좋았다. 지난 2년간 양식 현장에서 신규 김활성처리제를 사용한 김 생산 어업인들은 "무기산 사용량의 절반 정도만 사용해도 파래·요각류 제거

효과가 뚜렷해 만족스럽다"는 입장이다.

전남도는 향후 해양수산부 고시 개정 및 지식재산권의 산업체 기술 이전 등을 거쳐 지역 내 양식장에 신규 활성처리제를 본격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국내의 특허 출원까지 신청한 상태다. 고흥-완도-진도-신안 4개 군에서 대규모 현장 적용 시험(1100ha)도 마쳤다. 전남도는 올해 국비 지원을 요청, 김 양식어민들에게 좋은 활성처리제를 보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국김산업연합회는 이같은 점을 감안, 지난 6월 김 지사에게 김 산업 도약과 위상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공로패를 수여했다. 지역 어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흘려들지 않고 끈질기게 매달려 해결함으로써 결국 '검은 반도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김 산업 활성화를 이끌었다는 점을 인정받은 셈이다.

전남도는 전국 80%에 달하는 물 김 생산지로, 지역 김 산업 위상 강화를 위한 '국립 김산업 진흥원' 설립도 추진중이다. 김 국제 수출단지, 국제 마른김 거래소 플랫폼 구축, 해외 소비자 공동물류센터 조성 등 김 국가전략클러스터 구축 비전도 밝힌 상태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천혜의 전남 바다에서 생산한 김으로 양식 어민, 유통·가공업체 뿐 아니라 김을 맛보는 세계인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안전한 생산 시스템, 다양한 상품, 수출 확대 방안 등의 과제를 하나씩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 간선급행버스체계 'U자형' 윤곽...전용차로·신호 우선 적용

대동고~신안교 6.6km 구간...도심 핵심 지점에 정류장 촘촘히 배치

광주시가 도심 남북축을 잇는 'U자형' 간선급행 버스체계(BRT) 초안을 내놨다.

대동고-신안교 6.6km 가로변 전용차로를 'BRT'로 전환하고, 능성역-광천사거리-신안교-북부경찰서 등 주요 연결 지점에 정류장과 환승을 촘촘히 배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광주시는 4일 시청에서 '광주권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개발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BRT는 '지하철처럼 다니는 버스'를 목표로 도심 주요 구간에 버스 전용차로와 버스신호 우선체계를 적용해, 시내버스보다 더 빠르고 정시성을 강화한 고급화 대중교통 체계다.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노선 구상은 남구 백운권에서 광천권을 지나 북구 마곡지구까지 굽

어 올라가는 'U-type BRT' 개념이다.

노선축 상의 정류장 후보지는 백운주유소, 백운교차로, 능성교차로, 광천사거리, 신안교-북부경찰서 교차로, 광주공고 일대 등으로 제시됐다. 도시철도 1호선 능성역과 광천터미널권, 북구 학원-주거지대를 하나의 간선으로 빠르게 묶어 일상 통근족을 단순화한다는 설계 취지다.

이번 용역안은 이 원리를 남북축에 적용했다. 정류장은 보행 접근이 쉬운 곳으로 옮기거나 길게 만들고, 교차로 진입부에서는 버스 흐름을 먼저 통과시키는 쪽으로 신호·차로를 재배치한다. 특히 능성역-광천사거리, 광천지안센터→광천사거리처럼 상습 정체 구간은 정류장 위치·환승 동선·신호체계를 함께 손바탕 특색을 줄이도록 제안했다.

시는 승용차 통행이 증가하고, 대중교통 정체가 심화하자 BRT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 이후 광주 승용차 통행은 연평균 1.8% 늘고, 버스+지하철 통행은 4.2% 증가했지만 총통행량은 0.2% 감소했다. 자동차 등록대수도 연 2% 수준으로 늘어 기존 도로 운영만으로는 혼잡을 풀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시는 BRT 전환을 통해 승용차 중심 수요를 대중교통으로 옮겨 도심 혼잡을 낮추겠다는 복안이다. 정류장 접근성과 환승 편의, 신호체계 개선, 기존 전용차로의 단계적 고도화 등을 연동해 '대·자·보' 중심의 도심 이동체계를 앞당긴다는 구상이다.

광주시는 이번 중간보고회 개선안을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와 시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전남 관광업계, 무안공항 재개항 촉구

광주·전남 관광업계가 무안국제공항 재개항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전남 관광업계는 4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안국제공항 장기 폐쇄로 광주·전남 관광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며 "무안공항 조기개항과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

소했다.

단체는 "중국인 단체 무비자 조치 등으로 전국에 K-관광의 바람이 불고있지만 광주·전남 관광업계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며 "수도권을 비롯한 타 지역은 관광객 유치에 나서지만 광주·전남 관광업계는 무안공항 폐쇄로 출발선에도 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이어 "한국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발표가 12월로 연기되면서 무안국제공항 재개항 시기가 불투명해졌다"며 무안국제공항 조기개항을 책임감있게 추진할 것, 재개항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로드맵 제시, 무안국제공항의 안전성 강화 등을 요구했다. 단체는 "올해 6월까지 발생한 지역 관광업 피해액은 2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

광주 인문투어 '소년의 길' 가을 시즌 재개

전일빌딩~옛 전남도청~5·18기록관...도슨트 동행 무료 걷기 진행

광주시에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인문투어 '소년의 길' 프로그램을 가을 시즌에 재개한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9월부터 11월 30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4시 두 차례, 도슨트 가이드 동행하는 무료 걷기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소년의 길'은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를 도시 공간에서 체험하도록 재구성한 보행형 코스다.

도심 사적지와 생활문화 거점 하나를 동선으로 엮어 작품의 장면과 실제 장소의 역사적 맥락을 연결한다.

운영은 혹서기를 피해 여름 동안 멈췄고, 상반기 5·7월 시범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가을 재개에 맞춰 안전관리와 해설 품질을 보강했다.

코스는 '소년이 걸었던 길'로 전일빌딩245에서 시작해 5·18민주광장의 시계탑, 상무관, 분수대, 옛 전남도청, 옛 광주직접사법원, 금남로 일대를 거쳐 5·18민주화운동기록관으로 이어진다.

작품 속 동호의 이동 경로와 5·18의 현장을 겹쳐 보게 하는 동선으로, 전체 소요시간은 1시간30분이다.

전일빌딩245는 당시 총탄 흔적이 보존된 상징적 현장으로, 도심 상공과 금남로 일대를 한눈에 조망하며 '도시의 기억'을 시작하는 기점이 된다.

5·18민주광장 시계탑과 분수대는 시민 집결과 추

모, 결의가 중첩된 장소로, 시위의 리듬과 일상의 시선이 교차했던 현장을 현재 보행의 속도에 맞춰 되짚는다. 상무관은 계엄하의 통제와 시민사회의 저항, 수송 노력 등이 교차 기록된 공간으로, 집단의 체험이 어떻게 공동체 서사로 전환했는지를 볼 수 있다.

옛 전남도청은 민주화 항쟁의 최중심부로, 대치와 협상, 보급과 의사결정의 무게가 쌓인 공간이다. 탐방은 도청 일대에서 문학의 서사와 사료의 사실을 교차해 진행한다. 옛 광주직접사법원은 부상자 치료와 희생의 기록이 농밀하게 남은 현장으로, 당시 시민들의 현형 행렬 등을 토대로 시민사회의 버팀목으로 확장된 사례를 확인한다. 금남로 구간에서는 집회·행진의 축이 된 대로의 공간성에 주목해, 거리 자체가 어떻게 '공적 의사표현의 무대'였는지를 체감하게 한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탐방의 종점으로, 기록과 증언, 교육이 순환하는 아카이브로 기능한다.

신청은 전일마당 홈페이지와 전화 그리고 투어 시작 30분 전 전일빌딩 1층 북카페 현장 접수로 받는다. 참가비는 없으며, 도슨트가 동행해 장소의 역사와 작품 서사를 팩트 중심으로 해설한다. 참여 확산을 위해 후기 이벤트도 진행한다. 탐방 뒤 현장 사진과 함께 필수 해시태그를 달아 개인 SNS에 후기를 올리면 추첨으로 기념품을 제공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6-중-166833호]

[광고]

허리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허리 디스크 협착증

미세현미경 수술
척추 내시경 수술
고주파 수핵 감압술
척추 유합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1985-2025

40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남도회

전문건설인 대한민국을 세우다!

「대한전문건설협회, 40주년 혁신적인 건설문화를 선도합니다!」